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투르비용 8 데이즈 모델의 새로운 에디션을 선보이다

피프티 패덤즈 투르비용 8 데이즈(Fifty Fathoms Tourbillon 8 Jours)가 다이버 워치로서 컴플리케이션 워치메이킹과 탁월한 성능 간의 이상적 결합을 실현해낸다. 섬세한 블루 다이얼 위에서는 플라잉 투르비용이 회전하고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은 손목 위에서 존재감을 발산하는 레드 골드 버전과 함께 놀랍도록 가벼운 티타늄 버전을 소개한다.

현대 버전의 피프티 패덤즈 런칭과 함께 2007 년 소개된 피프티 패덤즈 투르비용 8 데이즈는 다이버 워치 부문에서의 블랑팡만의 노하우와 컴플리케이션 워치 카테고리에서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십 년 넘는 테스트를 거쳐 심해에서조차 투르비용 메커니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며 하이엔드 타임피스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이 하이엔드 다이버 워치에서 선보이는 두 가지 신제품은 선버스트 피니싱을 가미한 섬세한 블루 다이얼을 통해 정교한 컴플리케이션을 보여준다. 캐리지와 연결된 상단의 브릿지가 없어 “플라잉”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투르비용은 12 시 방향의 커다란 오프닝 안에서 마치 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시계 구조가 지닌 기술적 복잡함이 아워 마커, 바늘, 베젤의 스포티한 스타일과 대비를 이룬다. 베젤의 경우 시계의 주요 요소로서 노치 형태로 더욱 잡기 쉽게 고안했고, 단방향 회전 시스템과 살짝 돔 형태를 띤 스크래치 방지 사파이어 인서트를 갖췄다.

이 새로운 피프티 패덤즈의 45mm 사이즈 케이스는 새틴 피니싱 처리한 그레이드 23 티타늄과 레드 골드 두 가지 소재로 만날 수 있다.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위한 대담한 선택인 티타늄은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가벼운 무게, 충격·압력·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특징이다. 레드 골드 버전은 좀 더 클래식한 느낌으로 투르비용을 보여주며 타임리스한 고귀함을 발산한다.

30 bar(약 300m)까지 방수 가능한 피프티 패덤즈 투르비용 8 데이즈는 전통적인 워치메이킹에서 만날 수 있는 코트 드 제네브 모티프와 서큘러 그레이닝으로 피니싱한 무브먼트인 셀프와인딩 칼리버 25C 를 탑재하고 있다. 새틴 브러싱 처리한 골드 로터는 오픈워크로 디자인해 무브먼트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보여준다.

티타늄 타임피스에는 블루 NATO 또는 세일클로스 스트랩, 티타늄 브레이슬릿 버전을, 레드 골드 워치는 블루 NATO 혹은 세일클로스 스트랩 버전을 만날 수 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세일클로스 스트랩의 경우 핀 버클 혹은 폴딩 버클 중 선택하여 매치할 수 있다.

최초의 모던 다이버 워치를 소개하며 1953 년 처음으로 바다 세계를 향한 블랑팡의 열정을 담아낸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에 이 새로운 모델이 추가되었다. 당시 블랑팡의 공동 CEO 이자 스쿠버 다이빙의 선구자였던 장-자크 피슈테르가 창조한 피프티 패덤즈는 다이버 워치의 기준을 세우며 워치메이킹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